

GRACE 선교소식

2025년 12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06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지난 주일에 드린 은혜 성가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귀하신 주님께 올려드린 최상의 찬양예배였습니다.

30개 그룹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으며,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깊이 몰입하며 큰 감격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룹이 악보를 거의 외워 찬양하고, 의상 하나하나까지 성의 있게 준비하여 규모 있는 합창단 못지않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기에는 아까울 만큼 은혜롭고 행복한 찬

양 축제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신 성도님들, 바쁜 일정과 힘든 형편 속에서도 오하려 더 잘 준비하여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에는 교육부 자녀들이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깨닫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 아이들이 그 의미를 배우고 은혜를 경험할 때,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절기마다 가족 여행을 통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며 믿음의 추억을 쌓는 것은 아이들의 삶에 더욱 깊고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성탄 주일 예배: 12/21
- 성탄절 온가족 감사예배: 12/25
- 송구영신예배: 12/31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래 남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히 12월과 새해 1월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에, 온 가족이 시간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세 번째 Grace Camp를 마치고

Grace Camp는 Time member들을 위한 영성 훈련입니다. AFA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의 영성이나 말씀의 삶에 변화가 너무 더디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한 집회를 하기 시작해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이곳 사람들이라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기도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10여명 목회자들을 침낭을 펴고 모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뻗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지

고 눈물들을 쏟아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은혜교회에서도 기도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수년에 걸쳐서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연이어서 사모들을 나오게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녀들도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은혜를 주셨고 특히 사모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의 역사로 밤낮이 바뀌어 온 가족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날 목회자들의 안수 기도 시간에 귀신이 들어나며 쫓겨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전 AFA에서 신장에 3.4cm 혹이 있던 목사의 치료 간증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역을 할 때마다 과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언제나 은혜 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기도제목

1. 사모 백내장 수술을 위하여
2. 내년 5월 AFA를 위하여
3. 내년 하반기 Grace Camp를 위하여
4. 제자 양육을 위하여
5. 저희 내외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하여

태국

김경수/서경란 선교사

라농까퍼교회 임직식

라농 까퍼교회가 날로 안정되어가며 주의 몸 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생활화되며 교회학교 어린이도 성경을 배우며 잘 성장해나감에 악기도 배우며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골의 작은 전도처와 같은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태국사회에 진출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곳의 성도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재무장과 영성회복

감사하게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새벽에 기도함으로 선교적 영성을 재무장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시도록 순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사역위주로 바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영성으로 선교하는 삶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보내신 땅 끝 이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여성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

여성 그리고 어머니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태국에서는 여성을 '푸잉'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다른 이름으로 '사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여성의 의미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말로서 품위 있고 강한 여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의 나라 태국에서 기독교 여성이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하나님나라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태국 땅끝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영혼

태국에서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만큼 영적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렵다는 것입니다. 쿤 두이 남자가 교통사고로 아픈다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파로 임재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해주시며 주의 구원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또한 쿤 짬토 여성이 새롭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쿤 짬토는 태국인이 아닌 라오스어인입니다. 전세계 민족중에 태국어로 소통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태국어로 소통되는 한 나라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북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오스국가입니다. 라오스언어가 태국어와 거의 비슷하며 지방 사투리라 생각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쿤 짬토는 태국남자와 결혼해서 라농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교회문턱을 밟게 되었으며, 남편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이곳에서 믿음생활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는 향후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카렌교회

임마누엘 성도들은 라농에서 이주민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다 이주민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가야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천국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미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태국 GTD 2기

태국 GTD 2기 팀멤버로 참석하여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 5명을 데리고 무려 차로 16시간 거리를 달려가는 거리였습니다. 너무 먼거리이고 비행기가 한번에 가는 것이 없어서 두 번타고 가야하기에 망설였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감사하게 비행기를 한번 탈수 있도록 사랑을 낭비케 하고 헌신케 하셨습니다. 모두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성도들은 너무 즐거운 시간과 특별한 경험을 하며 모두가 감사하였습니다. GTD기간 내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이들이 또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이로 계속해서 팀멤버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B국

곽OO / 김OO

지난 25일 M교회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로 기도 요청하였고, 주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수요일 G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을 마치고 다 M교회에 가서 살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M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딱 붙은 앞집, 옆집은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는 동네사람들의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그

래서 엿그제 금요일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 슬픈 자들이 잘 일어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M국

유00 / 킨000 선교사

예수마을에 전기공급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에 전기가 없이 태양열 판넬에 의지해서 등 하나로 살던 예수마을 주민들에게 전기가 공급되어 광명을 찾았습니다.

직업훈련

양육 중인 선별된 5명의 스텝과 킨000선교사가 4개월간의 직업훈련(간호사/약판매사)을 마쳤습니다. 특히 훈련 받는 동안 쌓인 의료상식과 의사들과의 관계로 인해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예수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케레이

그동안 정식학교를 다니지 못하던 고아인 '거케

레이'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던 중에 Y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다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로 이전하여 신앙생활과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확보

많은 피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수수농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대략 1만 여평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었고, 현재는 수확하여 판매를 위해 말리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남은주민들

고향에 땅을 두고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피난민들은 거의 다 귀향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여전히 남아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가족(어른 5명과 아이들 5명)과 주위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몇 명과 함께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사역

팀사역을 하는 저희는 다른 선교사님들 베이스의 방과후학교 학생들과 양육 중인 스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그중에서 선별된 친구들을 한국으로 유학(신학 등)을 보내기 위해 한국어학원을 기도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초에는 정식오피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V국

강00 / 한00 선교사

2018년 선교사 훈련 가운데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는 중 V국에 대해 첫사랑의 눈물같은 눈물을 세번이나 주셔서 V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H공항에 착륙 바로 전 비행기 안에서 두손들고 축복하던 중에 '여기가 네가 제자삼고 사역할 곳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한00 선교사님에게도 동시에 똑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H도시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는 일과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각 교단 기도회 참석 및 주일 설교와 간증

2020년 엘사다이 교회 입당예배 축하메시지(축사)를 계기로 하나님의 성회 총회금식기도회(매월 첫주간 3일, 29년간 이어옴)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회(Church of God. 오순절)와 전도연합총회, 순복음총회, 독립교단연

합 기도회에 매월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총화장님드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V교회는 교단별로 매월 초 1~3일 (금식)기도회를 가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단 소속 교회들의 요청으로 여러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주일 순회하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양육

우리 부부(주로 한00 선교사)가 3년 전부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몇 명의 전도사를 매주 성경공부를 통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히엔'은 열심히 공부해서 3년만에 통역



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자 학교(AJD)

제자학교는 작년 9월부터 Son목사님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화-금)목회자 및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신학, 목회를 가르칩니다. 현재 30여명이 등록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합속신학교로 발전시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척교회 돕기

작년에 Son 목사님은 '생명과 빛'교회를 시작했고 Sang목사님은 투덕에서 살롬교회(두번째 교회)를 열었고, 안경점 사장인 Hoa 선생은 올해 Pjo Viet 목사님과 함께 안경점에서 '꾸이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8월 10일)에는 Tri 사모님과 긴 목사님이 올해 새로 개척한 쫄뎌교회(두번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엌겸 거실에서 17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가 천국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룡안의 야베스 교회도 5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40여명까지 모이는 어엿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기도해 주신 덕분에 M국 아웃리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며 앞으로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고 훈련 일정과 허입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더 씩씩하게 자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은 P국 빈곤지역의 무슬림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나 이슬람에서 회심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OO이 내년 3월 먼저 현장에 들어가 초기 정착을 돕고 장OO 사역자의 정기검진 이후 가족이 4~5월 중 현지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기도제목

1. 비자 문제가 지혜롭게, 또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2. 협력교회와 후원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3. 파송 준비를 위한 각종 서류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12월 정기검진에서 장OO사역자의 건강이 잘 지켜지도록
5. 유빈이와 다빈이도 마음을 잘 준비하여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탄자니아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잔지바르는 탄자니아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선거에 불만을 품고 육지에서 데모하며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인터넷을 차단하여 외부와 연락수단이 두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어서 불안하였는데, 이런 상황속에서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행이 인터넷도 소통되어 표면적으로는 정상을 되찾은 것 같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사상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육지쪽의 이런 위험한 상황과 달리 잔지바르는 비교적 평온한 상황이 유지되어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정국이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 학교

7학년 학생들이 지난 9월에 국가시험을 마치



고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를 받고 원하는 학교에 모두 진학하기를 두손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며 지나온 9년 동안 들은 주님의 말씀들이 마음판에 뿌리 내려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장래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기 관의 지도자로 세워 주셔서 현재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것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바뀌어 다음세대들이 되도록 성령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학교

엄마의 치마폭에서 놀기만 하던 아이들이 생소한 학교생활에 두려움 반 기대반으로 입학하여 한 가지씩 적응해가며 공부를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할 시간이 되어 11월 10일~13일까지 올해 마지막 시험을 마쳤고 이달 말쯤에 졸업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1년을 지나는 사이 얼마나 야무지고 의젓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내내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노아학교에 입학하면서 자기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 생선과 여러가지 야채 반찬으로 골고루 밥을 잘 먹다 보니 아픈 아이들도 없어 100% 출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한끼만 잘 먹어도 건강하고 키도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버그린 학교 건축

선거기간동안은 위험에 대비하여 에버그린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조심하며 무사히 지냈고, 지금은 계속해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실벽 미장작업과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장작업은 이번 주말까지 끝낼 예정이고 화장실은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우기철을 맞아서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파놓은 깊이 4미터의 화장실 구덩이에 빗물이 고여 물을 퍼내고 무너지지 않도록 큰돌로 쌓으며 물이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등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들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학교가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 이 이슬람땅 잔지바르를 복음으로 덮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I국

한OO / 손OO 선교사

방과후 학교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번에 S지역에서 발생했던 임산부 자살과 한 정치인의 보복 발언으로 인해 지금까지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사역자 수짓이 협박 문자를 받고 있으며, 이 여파로 최근에 미국 선교사들이 저희 주에서 두 번이나 마을에서 잡혔습니다. 마을 기독교인들은 힌두인으로부터 교묘하게 종교적 협박과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마을에 들어가 방과후 학교 아이들과 마을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예전만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과후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주십니다.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전인적으로 자라고 인도와 열방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의 기쁜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사역

한동안 한국어수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B대학에서 이번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큰 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받은 지 한참이나 지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려나? 내 기도의 분량이 아직도 덜 찼단 말인가? 내심 의아하던 중 연락이 와서 반가웠습니다. 늘 학생모집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던 학교 측이 이번에는 학생모집을 다 해 두었으니 저는 와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총장님의 아들도 합석하여 수업하겠다고 하며, 개인수업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 여전히 B대학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돌발을 기경하는 일이 처음부터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보단 몇 배로 힘이 들겠지만 주님의 뜻이 있는 바로 그 땅에 돌을 들어내고 깽으로 갈아엎어서 씨뿌리기에 적합한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사랑의 기도를 힘입어, 저는 복음의 막노동꾼으로서, 모판을 기르고, 모를 심고 추수의 그날을 소망하며 수고를 마다치 않는 농부로서 한걸음씩 전진하기 원합니다.

매주 주일학교와 토요일한글학교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G학교에서의 수업도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가정사역과 B대학의 요청에 대비하고 집중하기 위해 확답을 미뤘습니다.

GMI 델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델리 GMI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I국 각지에서 모여 온 훈련생들은 7개월 교육 과정으로 훈련을 받고, 마치면 본향으로 돌아가서 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1주일 동안 가르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역사서를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제자와 종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단순히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훈련생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힘든 가운데 훈련받고 있지만 이들을 통한 I국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B도시 GRACE 인카운터

저의 사역자 수짓과 함께 I국 B도시 GRACE 인카운터에 팀멤버(스텝)로 참석했습니다. 인카운터는 “만남”이라는 뜻으로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인카운터는 앞으로 인도 교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사



랑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감격스러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B도시에 오면서 기차역에서 본 갈 길을 잃은 한 여인,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인카운터에 온 여인, 삶을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배회하는 영혼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고 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카운터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N국 단기선교 및 훈련

인카운터를 마치고 수짓 사역자는 B도시에와 접해있는 N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N국 전도자로부터 복음 전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타문화 훈련도 받고 수짓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N국에 보냈습니다. 수짓 사역자가 한 시각장애우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필요한 것이 많아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짓 사역자는 “나는 가진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들을 천국으로부터 도울 것입니다” 말하고 그들에게 보는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그들 옆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환희로 가득한 얼굴로 주님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면서 부르는 그들의 찬양은 수짓 사역자 자신이 그동안 종종 놓쳤던 환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러나 그동안 불평한 것이 정말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못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1분단상 147-12월호>

- 김대규 장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며,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함없는 사랑의 본질이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불변하는 우주적인 사랑이다. 이 우주적인 사랑의 중심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앞에 회복될 때 만물도 함께 회복된다(행3:19-21)는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일방적 것이지만 분명히 사랑에 눈을 뜬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자도 없었다. 다만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사랑하신 것이다. 죄인에게도, 배신한 자에게도, 넘어지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아가서와 호세아서를 통하여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렵게 볼 수 있다. 아울러 모압 여인 룯과 가나안의 라합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을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보살핌과 사랑이 있었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코자 몸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할 고귀한 희생과 사랑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방인의 수가 먼저 차게 하시는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롬 5:6-8).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로 요약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이다. 사랑(아카페: ἀγάπη)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도 행해야 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의미한다(마22:37-39).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여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다. 성령님의 개입,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함께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배우면 된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모든 대상을 사랑하셨다. 제자들과 삶을 공유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를 전하셨다. 치유와 축사를 통해 하나님나라가 임함을 증거하시며 복음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셨다. 이런 희생과 하나님의 증거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을 구원코자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했다는 말이다. 이에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모든 말씀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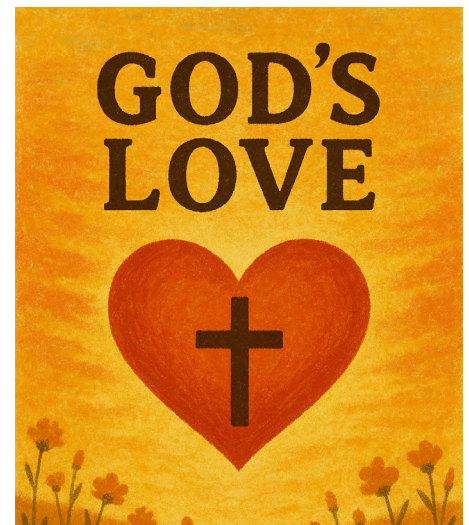
욥도 시련 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

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므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욥42:1-10).

우리에게도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또한 욥처럼 예고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방적인 사랑으로 결국에는 반전시키신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사랑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다. 사랑의 실체는 기도와 말씀과 행함이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행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8)를 노래 부르는 자가 되자.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선언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태국 김경수/서경란 선교사

1. 라농까퍼교회에 새로운 전도사 쿤빔이 맡겨진 복음 사역을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2. 라농의 성도들 중에(땡, 램, 뷔, 모, 폰, 다우)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도록 영적 토양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한 영혼들이 훈련받게 하소서.
3. 라농지역이 시골지방지역이지만 이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도심으로 확장되며 도심과 지방이 영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태국선교지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4. 라농 임마누엘 미얀마카렌교회가 이주민의 신분과 난민의 상황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영적지도자들(더와, 존, 영상투, 수나이, 말라고, 솜펫)이 생활고에 시달리기에 일과 사역을 병행함으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사도바울의 영성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5. MK 주찬, 주본군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데 지치지 않고 안전하며, 주의 비전안에서 선택하신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살아가게 하소서.
6. 현지교단과 노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하며 복음전파에 더욱 힘쓰는 노회가 되게 하소서.
7.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일꾼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겨나가게 하소서.
8. 막바지 우기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계속해서 주님주시는 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과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서 놀리지 않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승리해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소서.
9.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게 하소서.
10. 사역을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나가며, 하나님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11. 행해지는 모든 예배에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게 하소서
12. 라농지역 교회들이 정기적 모임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연합해 나가게 하소서
13. 성경을 배포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게하소서



M국 유00 / 킨000 선교사

1. 남은 피난민이나 돌아간피난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2. 12월 28일에 있을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꾼이 뽑히기를
3. 새로운 사역(한국어교육)을 준비중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4. 유00, 킨00선교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있기를
5. 2025년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2026년에도 예수마음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I국 한00 / 손00 선교사

1. 사역하는 현지 마을이 하루 속히 안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2.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3. 한국어 학원이 세워지고, 학생들을 전도하고 주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4. 한국어 사역을 통해 대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5.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교회당과 방과후학교가 건축되도록
6.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교육환경 개선, 교사 양성, 성탄절 행사)이 채워지도록
7.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과 신분 보안, 장기비자 발급을 위해서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규영 / 오호숙 선교사

- 거짓 종교가 삶과 신념이 되어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잔지바 이슬람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받게 해 주세요.
- 제 10기 성경대학 6명 학생들이 말씀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 노방전도를 할 계획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에버그린 7학년 학생들이 정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중학교에 장학금 받고 진학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에버그린학교 건축이 완공되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버그린, 노야학교가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요새와 산성같은 학교가 되게 해 주세요.
-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오호숙 선교사는 한국에서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고 치료받고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국 한OO / 김OO 선교사

- 현지 신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적은 인원이라도 목회자, 평신도 제자훈련이 실행되도록
- 문화사역으로 함께 하는 교회 청년부 말씀 양육 사역으로 확장해서 섬길 수 있도록 및 발리 미전도 종족의 좋은 접촉점으로 쓰임받도록
- 더위 적응과 벼룩 문제가 항상 골치인데 에너지 빼앗기지 않도록
-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 내년 4월 이사를 해야하는데 무더위와 계속되는 이동에 몸이 피로하지 않고 적절한 좋은 이사 업체와 잘 연결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적으로나 일상생활이 평안한 합리적인 공간을 허락해주시도록
-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충만 말씀충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선교사의 삶 살아가도록

이국 기OO 선교사

- 후원하는 아동과 가정, 기숙사 학생들 및 공동체 학생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 섬기는 땅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멕시코 노갈레스 인카운터 (1/18-1/23)
S/L: 이창기 목사
디렉터: 김대규 장로
문의: 전홍준 집사 (714-914-9980)
- 페루 AFA 21기 (1/26-1/29)
S/L: 안영식 목사
문의: 이한철 집사 (858-335-9415)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갑 집사 (714-337-3091)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